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10.(화)

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행정조사

- 특수건강진단 전 의학적 근거·투약 적정성 등 점검해 부적절한 투약 여부 조사 -
- 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료계 전문가 자문 통해 조사 전문성 제고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11월 10일(화)**부터 **16일(월)**까지 **킬레이션*** **주사 투약** 관련 **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**를 대상으로 **제5차 비정상·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**한다고 밝혔다.

* 킬레이션(chelation) 치료란,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하여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,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됨

이번 조사는 지난 **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**에서 제기된 **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**에 따른 것으로,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다.

제보에 따르면, 일부 의료기관에서 **노동자**를 대상으로 **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**한 후 **킬레이션 주사**를 **최대 5회 투약**하고, 이듬해 **2~3월 특수건강진단**을 앞두고 **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**이 제기되었다.

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**▲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** 및 **증상·진단명**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**의학적 근거** **▲약제의 종류·용량·투약 횟수** 및 **간격** 등 **투약의 적정성** **▲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** **▲특수건강진단과 투약과의 관계성**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.

아울러 **실제 투약 목적**과 **진료 내용**이 **일치**하는지, **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**되었는지 등 **진료기록**을 확인하고,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**환자 유인·알선, 부당청구, 허위·과장 의료광고, 비급여 보고**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.

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**진료 적정성**에 대해 **대한의사협회**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**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**하고 향후 **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**에도 **활용**할 계획이다.

※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"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"(10.23.)

곽순헌 비정상·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"**의료**는 **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**이며, 특히 **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**"라며, "**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**이나 **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**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**엄정하게 대응**하겠다"라고 밝혔다.

아울러 "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투약이 **의학적으로 적정**했는지 여부와 **투약시기·횟수** 및 **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** 등 **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**를 **면밀히 확인**할 것이다"라며, "진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**의료계 전문가 자문**을 통해 **판단의 전문성**을 높이고, 조사 결과에 따라 **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 조치**를 추진하겠다"라고 강조했다.

또한 "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**비정상·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 확대**해 나가고 **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**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다"라며 **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**를 당부했다. 제보는 국민 누구나 **전화**(☎ 129) 또는 **이메일**(medi129@korea.kr)로 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 비정상·가짜진료행정조사반 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영학 (044-202-24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예슬 (044-202-240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